

# 코로나19 광주 '여행사·펜션·노래방' 직격탄

## 호남통계청 '코로나 전후 광주 생활업종 소상공인 경제변화상'

### 2020년 연매출 최대 67.7% 급감...개업도 19.8% ↓ 여행사·노래방 수 10.5%·12.3% ↓ 소비감소 등 여파

코로나19에 광주지역 여행사·펜션·노래방 매출이 급감,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.  
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광주지역 생활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창업이 20%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.

1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'코로나19 전후 광주 생활업종 소상공인 경제변화상'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광주 소상공인 평균 연매출액은 1억2천500만원으로, 코로나19 이전(2019년)에 비해 0.7% (100만원) 증가했다.

이 중 소매업 소상공인 평균 연매출액은 1억8천100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0.8% 증가했다.  
식품품점(11.8%), 가전제품(10.4%) 등은 증가한 반면 화장품·방향제(-13.1%), 휴대전화점(-9.6%) 등은 감소했다.  
음식업 소상공인 평균 연매출액은 1억1천800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1.1% 감소했다.  
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치킨(12.1%), 중식(10.7%) 등은 증가했으나 기타 외국식(-11.7%), 호프·간이주점(-5.4%) 등은 감소했다.  
2020년 광주 생활업종 소상공인 사업

체는 총 7만2천147개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천116개(1.6%) 증가했다.  
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의류(5천326개), 식품품점(4천561개), 통신판매(3천606개) 순으로 많았다.  
음식업 사업체는 한식(9천190개), 호프·간이주점(3천750개), 카페(3천454개) 순으로 나타났다.  
반면 개업은 1만514개, 폐업은 9천42개개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각각 19.8%, 8.9% 감소했다.  
사업체 개업이 1년 전과 비교해 20% 가량 감소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감소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

의 신규 창업이나 업종전환 등이 이전과 비교해 활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.  
폐업사업체 평균 영업기간은 4.3년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0.2년(5.3%) 증가했다.  
소상공인 평균 연매출액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여행사·펜션·노래방 등의 순으로 여가생활, 생활서비스, 교육업 분야에서 두드러졌다.  
여행사 평균 연매출액은 1천800만원으로 전년(5천600만원) 대비 67.7%나 급감했고 펜션도 4천700만원으로 전년 9천200만원에서 48.8% 감소했다. 노래방은 3천만원으로 전년 4천만원에서 24.2% 감

소했다.  
특히 여행사 사업체 수는 2019년 373개에서 2020년 334개로 10.5% 감소했고 노래방 사업체 수는 1천344개로 전년(1천533개) 대비 12.3% 줄었다.  
광주 5대상권(충장로 일대·상무지구·봉선동 일대·전남대 일대·수완지구) 소상공인 활동사업체는 1만8천227개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80개(-0.4%) 감소했다.  
해당 상권의 소상공인 평균 연매출액은 1억2천200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1.2% (9천200만원) 감소했다.  
/양시원기자



추석 과일 선물세트 신세계백화점이 2022년 추석을 맞아 국내산 애플망고와 청망고, 사인머스켓 등으로 구성된 과일 선물세트를 선보인다. 사진은 추석 과일 선물세트를 홍보하는 모델. <신세계백화점 제공>

## 국산 농축수산물 저렴하게... '추석맞이 할인대전'

### aT·농식품부, 내달 12일까지 한도 내 20-30% 할인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 국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9월12일까지 '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'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.  
이번 행사는 마트·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구매액의 20-30%를 할인해주는 '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(농축 쿠폰)'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.  
기존 1-2만원이던 할인 한도를 대형마트, 중소형마트, 친환경매장, 민간 및 공공기관·지자체 운영 온라인몰에서 업체 행사주기별 1인당 2만원으로, 로컬푸드 직매장과 전통시장에서는 3만원까지

상향했다.  
대상 품목은 배추, 무, 사과, 배, 양파, 마늘, 달걀 등 주요 추석 성수품이며 행사 매장 및 온라인몰 상황에 따라 품목이 변동될 수 있다.  
소비자 편의를 높이고자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행사 품목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도록 했다. 온라인몰은 사이트에서는 추석 농축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.  
이번 행사에는 알뜰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'농축상품권' 판매도 재개된다.  
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제로페이, 체크카드 앱 등을 통해 농축상품권 구매

시 30% 할인이 적용된다.  
농축상품권은 전통시장 내 농활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농활가맹점은 휴대폰 앱 '지맵(Z-MAP)'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.  
또 전통시장 온라인몰(온누리마켓·온누리전통시장·온누리시장), 놀러와요 시장(전통시장 상품주매대일), 직거래 장터(바로마켓)에서도 농축쿠폰을 발행해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.  
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사용자 등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aT는 추후 관련 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해 김장 행사 등 할인행사를 예산소진 시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.  
/양시원기자

## LH, 광산구 첫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지원

### 광산구청·광산경찰서와 협약...주택 제공 등 올해 운영 개시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광주 광산구, 광산경찰이 지역 아동 보호 기반 마련에 손을 맞잡았다.  
LH 광주전남지역본부(이하 LH)는 17일 광산구청에서 광산구, 광산경찰과 '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·지원'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.  
<사진> 협약에 따라 LH는 안전한 주택을 제공하고 광산구는 쉼터를 운영하며 광산경찰은 순찰 강화를 담당하기로 했다.  
앞서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는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학대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'즉각분리제도'를 시행했다.  
이에 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가 더 많이 필요해졌지만, 설치 기준에 맞는 주택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.

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00㎡ 이상에 방 4개 이상을 갖춰야 하나, 예산 지원은 3억2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.  
현재 광주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총 4곳이다. 지난해 기준 광주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천18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. 이 중 광산구는 별도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전무해 분리조치 필요 시 타 구의 쉼터를 이용하고 있다.  
LH는 입지조건, 안전요소 등을 검토해 매입임대주택 2개호를 활용한 연결형 쉼터 공간을 광산구에 제공한다.  
광산구는 올해 중 쉼터를 신속히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. 쉼터에는 아동의 공부공간과 심리치료실 등이 조성되며 아동보호자 항시 거주를 통해 아



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.  
광산경찰은 주기적으로 쉼터를 방문, 순찰해 안전을 점검한다.  
김재경 LH 광주전남본부장은 "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에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"며 "아이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  
/기수희기자

## "지역경제 활력 제고 관세행정 집중"

### 김용식 42대 광주본부세관장 취임

김용식(51·사진) 제42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7일 취임했다.  
전남 장성 출신인 김 세관장은 지난 1996년 행정고시 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, 조사감시국장, 역관국장을 거쳐 대구본부세관장 등을 역임했다.  
김 세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"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지원 등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"이라고 밝혔다.  
김 세관장은 이어 "수출입 업무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

업무에 임해 달라"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으며 "광범위한 서남해안을 관할하는 세관으로서 관세규격 감시를 강화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불법·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"고 강조했다.



또 "다양한 세대,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 것"이라고 덧붙였다.  
한편 김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이날 오후 국립5·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공식업무에 돌입했다.  
/박은성기자

스마트한 에너지 사용 방법

**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!**

-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℃입니다.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% 줄일 수 있습니다.
- ②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~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.
- ③ 내복,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
-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,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.

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

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

## "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"

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'전통시장'이 정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'전통시장'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. 하지만 '전통시장'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. 각 자치단체에서는 '전통시장'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. 광주매일신문은 시·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.

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 
인정 가득한 곳

# 구례5일시장

● 장이 서는 날 ●  
매월 3일, 8일로 끝나는 날  
위치 :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작은길 20

주최 : 광주매일신문 · 광주매일 TV

후원 : 구례

문의 : 062)650-2099